

# ARCHITECTURE TRAVEL



장미경 건축사사무소 장승  
by Chang, Mi-kyung, KIRA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 본협회 발주제도개선TF 위원

## 2011 수원지역건축사회 남도건축기행

2011 JeollaNam-do Architectural Trip of Association of Suwon Architects

평소 월례회나 협회 행사 때에 얼굴 한 번 제대로 보기 어려웠던 건축사들까지 합세하여 크게 한 번 뭉쳤다.

외국도 아닌 국내, 그것도 겨우 1박2일 일정이 무슨 큰일이나 하겠지만 그동안 변변한 단체여행 행사가 없었던 수원에 80여명의 건축사가 1박2일 동안 뭉쳤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여행은 30대 신입건축사부터 80대 원로 건축사까지 함께 했는데, 특히 비회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의 화합을 다졌다.

### 8월 26일 (금)

남도 건축기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안고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수원지역건축사 80여명이 시청 맞은편 국기봉광장에 일찌감치 모였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청 건축 관련 과장 세분이 나와서 배웅을 하며 금일봉까지 우리 손에 쥐어 주었다. 감사 또 감사!

버스가 출발하자 황정복 회장은, 그동안 일하느라 생긴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1박 2일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인사말로 분위기를 띄우며, 새로 임회한 신입회원과 비회원도 있으니 자기소개도 하고 에로사항이나 수원지역건축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의사항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의 하였다.

회원들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거나, 긴 버스여행에 술이 없는 아쉬운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고, 원로건축사분들은 감개무량한 듯 옛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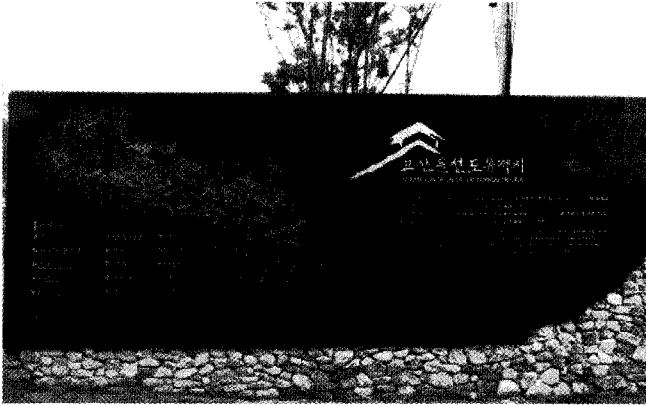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어느새 땅끝 마을 해남에 도착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우린 도착 하자마자 미리 준비해 놓은 해남의 백반을 배불러 먹고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

###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점심을 맛있게 먹은 우리들은 먼저 해남을 연동리 고산 윤선도 유적지를 찾았다.





해남 윤씨 종가인 녹우당에는 지금도 윤선도의 14대손이 살고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신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을 별도로 지어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황회장과 녹우당의 특별한 인연으로 우리들은 안채를 빼고 다 볼 수 있었다. 특별한 행운이었으며 좋은 인연에 또 감사!

사적 제167호로 지정된 녹우당은 윤선도의 고택으로 전라남도에 남아 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것이다. 현재는 해남 윤씨 종가 전체를 통틀어 녹우당이라 부른다. 녹우당 입구에는 약 500년 된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서 있고 뒤편 덕음산에는 천연기념물 제241호인 비자나무숲(수령 약 500년 된 400여본)이 있다. 바람이 불면 비자나무 잎 떨어지는 것이 마치 비가 내리는 듯 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녹우당이다.

녹우당 뜰 안에는 안채와 사랑채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문간채가 여러 동 있다.

녹우당의 사랑채는 효종이 윤선도를 위해 수원에 집을 지어 주었던 것을 일부 뜯어 옮겨온 것이다. 건물은 'ㄱ'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집 뒤편 담장너머에는 제각인 추원당이 자리 잡고 있다. 고택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해남 윤씨의 중시조인 어초은공 윤효정의 사당이, 그 옆에는 윤선도의 사당이 있다.

윤선도 유물전시관에는 윤선도가 직접 쓴 가첩과 윤선도의 증손이



며 다산의 외증조부 이기도한 선비 화가 공재 윤두서의 작품들을 모은 고택첩(古畫帖) 등 보물로 지정된 것들이 다수 있다.

그중에는 조선시대의 초상화 중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국보 제240호 윤두서의 자화상도 있다.

녹우당을 둘러보면서 수원화성과 인연 깊은 다산 정약용, 수원 집을 옮겨온 고택, 그리고 우리 수원지역건축사들... 뭔가 깊은 인연의 끈으로 맺어진 듯한 묘한 기운을 느꼈다.

### 땅끝 전망대



녹우당을 뒤로하고 다음 여행지인 땅끝 마을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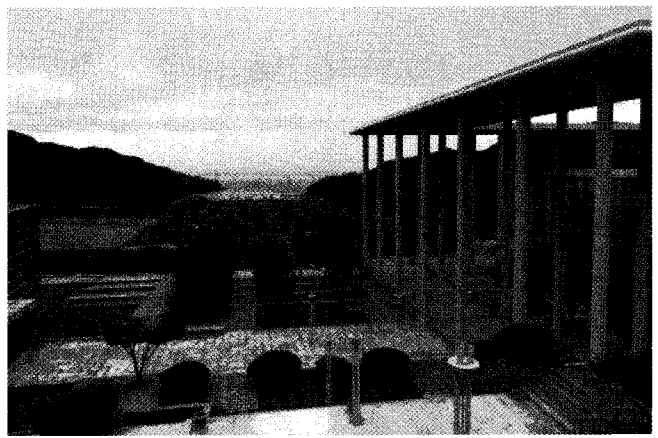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보니 진정 여기가 땅 끝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땅 끝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다는 끝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곳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회원들 모두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각자 마음속으로 끝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잡는 듯 보였다.

땅끝 마을에서 각자가 버릴 것도 많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도 필요했는지 일정이 많이 지체되었다.

### 국립남도국악원





땅끝 마을에서 우리의 숙소인 국립남도국악원에 가기 위해 명랑대 접지가 있는 우수영 관광지를 뒤로하고 진도대교를 건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진도에서도 거의 남쪽 끝에 있었다. 뒤에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에는 경사진 능선이 바다로 연결된 아름다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국악원은 (주)원양 건축사사무소(이종찬, 성진용)가 설계하고 2004년에 준공된 건물로 그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악원에서의 일정은 한옥에 대한 세미나 후 식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상 도착 하자마자 식사를 하고 국악 공연을 보았다.

국악공연은 진악당에서 있었는데 기악합주<난도굿거리>, 무용<산조무>, 가야금병창<수궁가>, 기악독주<거문고산조-한갑득류>, 무용<무산향>, 민요<홍타령>, 무용<진도북춤>등 정말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공연인 <진도북춤>은 북을 어깨에 베고 양손에 북채를 들어 다양한 장단과 몸짓을 표출하면서 힘차게 북을 두드리며 추는 놀이로 북판을 따로 독립하여 별도의 춤으로 승화시킨 것인데 정말로 흥겨웠다.

이것으로 국악체험은 끝인가 했는데 바로 이어 달빛마당에서 '강

강술래' 체험이 있다한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긴 버스여행과 건축기행으로 무척이나 피곤했기에 숙소에 모여 술이나 한 잔씩 하며 이야기하다 자야지 '피곤한데 뭘 하나?' 하는 눈치들이었으나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다.

사회자가 강강술래 예능보유자 박종숙님을 소개했고 이어서 '강강술래' 강의를 시작되었다.

그저 손잡고 빙글 빙글 돌기만 하면 될 것 같았던 강강술래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선창과 함께 후렴을 합창하면서 발을 맞추고 속도를 맞춰야 상대의 발을 밟지 않고 할 수 있다.

단결과 화합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놀이이다.

풀고, 엮고, 돌고 하면서 한 시간을 놀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한 듯한데 기분은 오히려 무척이나 상쾌하고 즐거워 회원들이 더욱 친밀감 있게 느껴졌다. 강강술래를 하는 내내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 비단 나만 느낀 감정이 아닌 듯하다. 나는 단체가 화합하고 뭉칠 때 적극 추천하고 싶은 놀이 1순위로 강강술래를 내 마음 속에 새겼다. 선창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강강술래를 끝으로 하루의 공식일정은 끝났다. 사람들은 강강술래로 흘린 땀을 씻고 삼삼오오 무리지어 자유롭게 모임을 계속했다.

### 8월 27일 (토)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침 식사 전 앞 바닷가까지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우린 국악원을 한 바퀴 둘러보고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국악배우기로 오늘 일정을 시작했다. 국악 배우기에서는 민요 '진도아리랑'을 배웠다.

진도아리랑은 세마치장단의 후렴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응 응 응 아리리가 났네' 하는 웅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민요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가사에 뭐든 붙여서 할 수 있는 장단이라서 우리도 대충은 따라 할 수 있었다.

국악배우기를 마치고 어제 시간상 못한 한옥세미나를 바로 시작



했다. 한옥 세미나에서는 우리 지역 건축사로서 홍익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김동훈 건축사가 '한옥의 대중화'를 주제로 한옥에 대한 인식과 한옥의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강의를 했다. 아울러 김 건축사는 한옥과 한국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신계철 전임회장의 경관세미나에 대한 계획도 있었으나 일정상 다음 월례회의 때 하기로 하고 고건축인 윤림산방 답사에 나섰다.

**윤림산방**

윤림산방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이자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유(1807~1890 후에 허련으로 개명)가 말년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던 화실로 윤림각 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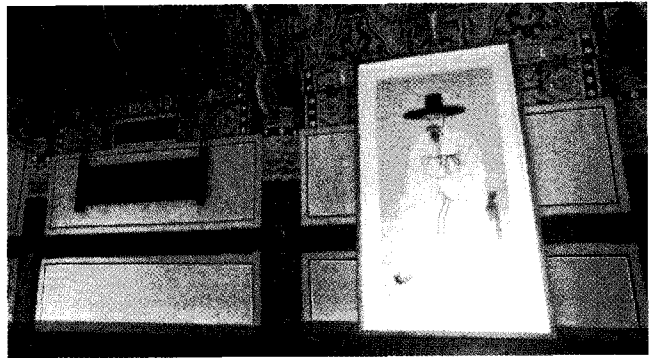
시(詩), 서(書), 화(畵) 삼절(三絶)로 칭송되었던 허련은 1856년 스승인 추사가 타계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으로 내려가 거처를 짓고 '윤림각(雲林閣)'이라 이름 붙였다. 이곳 첨찰산 주위의 수많은 봉우리가 어우러진 깊은 산골에 아침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숲을 이룬다는 뜻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윤림산방 내에는 소치선생이 기거하던 가옥과 화실, 영정을 모신 영정실이 있다.

**진도 문화 탐방**

윤림산방을 돌아보고 진도 문화 탐방에 들어갔다.

진도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니 아름다운 해변이 한 눈에 들어온다. 세방낙조 휴게소에 내려 바다위에 떠 있는 크고 작은 섬들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낮이라 낙조는 볼 수 없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섬들을 보니 섬들이 뭔가 더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다음에 올 때는 시간 맞춰 낙조와 어우러진 섬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동석산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우리는 남도 건축기행의 모든 공식일정을 마쳤다.

**돌아오는 길**

이평기 진도문화해설사의 이야기가 머리를 스친다.

'세상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일과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 했는데 많은 답이 나왔지만 정답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란단다. 이 이야기속에 담긴 '역지사지(易之思之)'의 뜻을 생각 하니 싸울 일도 서운해 할 일도 없을 것 이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건축사들이 내 입장 내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단결과 화합이 훨씬 쉬워 지겠다는 생각을 하며 의자 깊숙이 피곤한 몸을 맡겼다.

유익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애쓴 수원지역건축사회 집행부 여러분과 협찬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㉞

